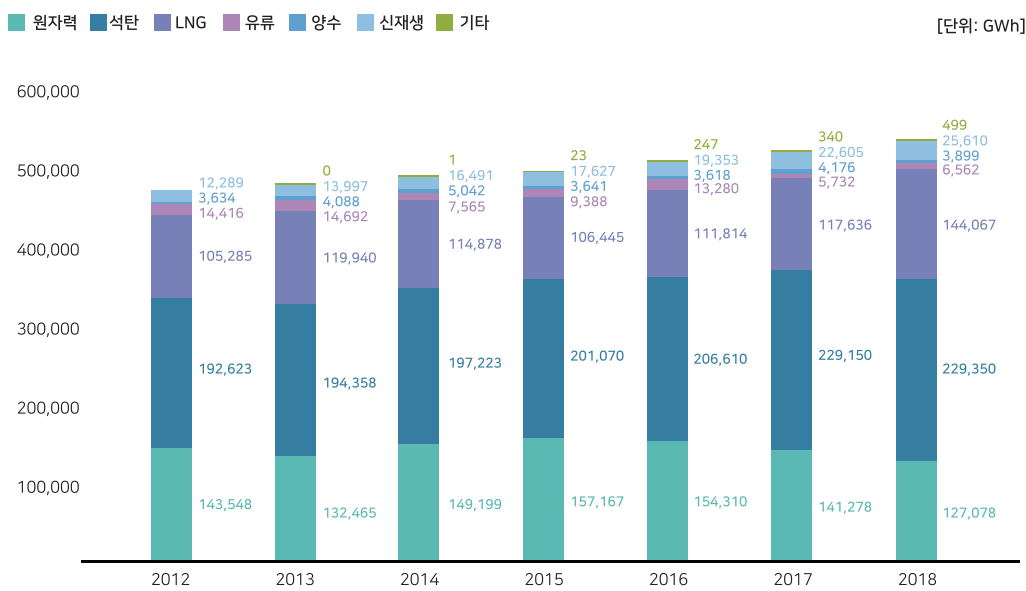


원자력발전의 경제적 기여도는 얼마나 될까요?

(2018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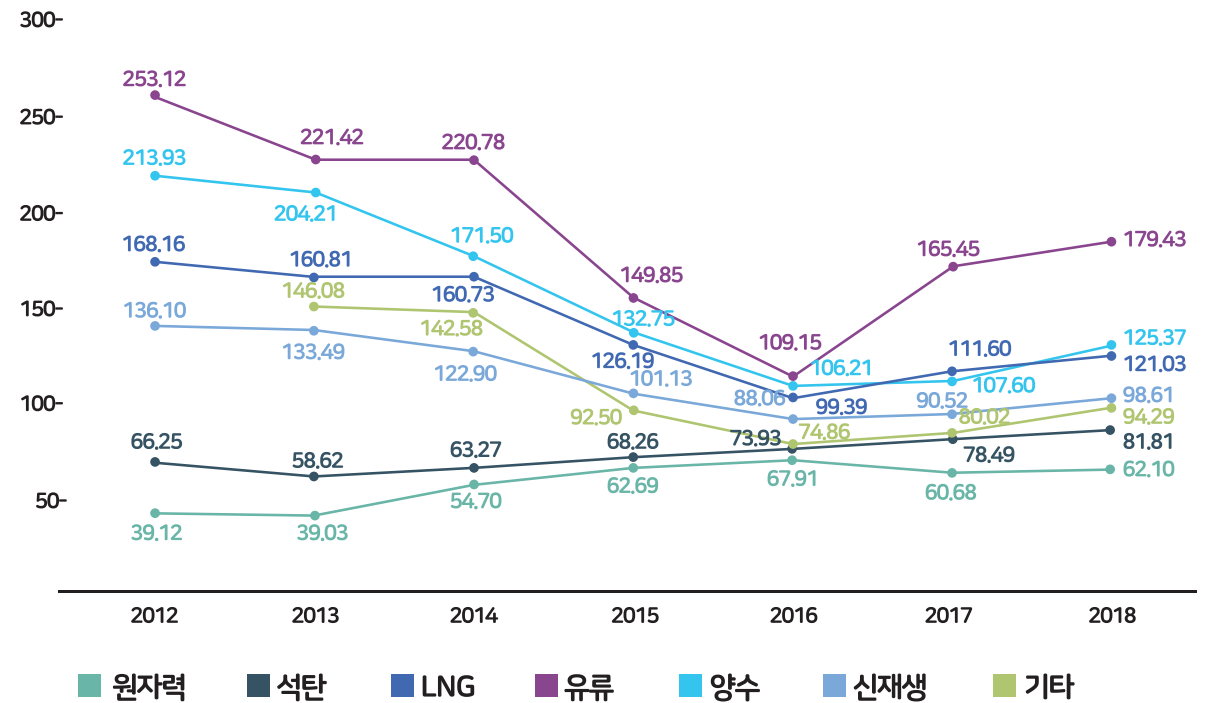
원자력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537,064 GWh의
23.7%인 127,078 GWh

전력거래량



전력시장 정산단가 평균은 90.09 원/kWh,
원자력 정산단가는 62.10 원/kWh

정산단가



2018년 전력거래소 전력시장통계(2019. 5)

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기여도를 계산해봅시다

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들의 평균 정산단가 98.77원/kWh
 원자력이 없었다면 한전은 평균 정산단가 98.77/kWh로 원전의 발전량만큼의 전기를 구입해야 함
 그러므로 **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기여도는 정산단가 차액인 36.67원/kWh**

원자력 발전량 x (나머지 전원 평균 정산단가 - 원자력 정산단가)
 = 127,078 GWh x (98.77 - 62.10) = 4,659,672 백만원 = 약 4.7조원

즉 한전(전력소비자)은 원자력이 없었다면 4.7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!
 (2018년 한전 매출액이 57.2조원, 원자력으로 8% 내외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효과)

**2018년 한 해 4.7조원의 경제적 기여를 한 원자력,
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.**

